

ESPezial, 독도 바로 알기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시오
학 교 명	간재울중학교
동아리(팀)명	한빛아라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한빛’이란 단어는 순우리말로 ‘세상을 이끄는 환한 빛’, ‘아라’는 ‘바다’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우리 동아리가 생각한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바다 끝에 위치하여 가장 빠르고 환한 일출로 사람들의 하루를 이끄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팀명을 ‘한빛아라’라고 짓게 되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국의 고유한 색을 잃어버린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는데 독도가 대한민국의 광복과 자주 독립을 의미한다고도 하여 그 의미를 한국의 고유한 색깔을 담은 순우리말 이름인 ‘한빛아라’라는 이름을 짓고, 뜻을 함께하여 모인 ‘한빛아라’ 친구들과 독도 사랑의 마음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자 하였다.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김태름	2	홍보, 제작
2	전혜림	3	기획, 홍보, 제작
3	조한선	3	기획, 홍보, 제작
4	추윤희	3	홍보, 제작
* 역할 분담에 구애받지 않고 동아리 구성원이 거의 모든 활동을 함께 진행함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ESPecial, 독도 바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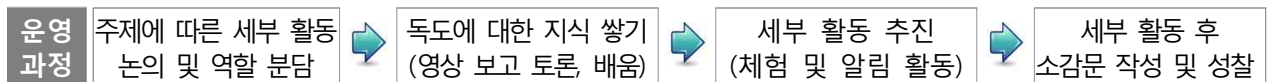
ESPecial, 독도 바로 알기

E	독도 체험 활동 (Experience)	S	독도 배움 활동 (Study)	P	독도 알림 활동 (Purbli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해 보는 기회를 가짐 이러한 기회를 통해 독도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가까운 곳임을 알아가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에 관한 지식들은 너무나도 기초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임 우리가 독도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가지기 위해 더 자세히 깊이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바른 역사 지식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의 필요성을 느낌



- **주제 선정 이유** :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별한(Especial)'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도. 당위성만을 주장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독도에 대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독도에 대해 바로 알고 바른 지식을 알리고자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활동 기간** : 2018년 5월 17일 ~ 2018년 8월 9일

○ **추진 방법** : 주 1회 모임을 통해 활동을 계획 공유하고 계획한 일정에 따라 추진함



○ **활동 내용 (날짜순)**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월 17일~7월 20일 (주 1회)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독도 알림 활동 (Purblicity)</div> 독도사랑 캠페인	간재울중학교 교내 교실 및 교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켓 제작-5월 17일~5월 20일 ● 홍보 활동- 5월 20일~7월 20일 (주 1회) ● 세부활동 : 직접 피켓을 만들고 구호를 정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각 학급에 들어가 한빛아라와 독도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을 통하여 독도에 대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독도의 관한 관심도와 지식의 척도를 진단해보고 독도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질문하게 함으로써 지난 날 등한했을 수 있는 독도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독도 사랑 캠페인 홍보 장면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홍보피켓 예시 </div> </div> <p>● 활동 소감 : 독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 수는 약 300여명 중 10명도 채 안되었다. 우리는 한국인이자 독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확인했으나 우습게도 교내의 학생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다. 이를 통해 동아리원들은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지식과 경각심을 일</p>			




	<p>깨워주는 것이 좋겠다며 이야기하였고 우리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p> <p>우리는 학생들에게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은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답한 것은 캠페인 활동이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우드락을 꾸미고 그림을 그리며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하며 서로 흐뭇하게 웃었다. 시간이 흘러 막상 캠페인을 하는 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사명감과 함께, 실수에 대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러나 ‘한빛아라’ 라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같이 활동하면서 함께 함을 느끼고 홍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더욱 즐겁게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p>		
	<div><div>독도 배움 활동 (Study)</div><div>독도사랑탐구활동 참가(교내 대회)</div></div>	간재울중학교 교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 사회 교과에서 주관하는 독도사랑 탐구활동(포스터, 만화, 팸플릿) 참가● 독도의 가치를 탐구하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표현물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본 동아리원 2명이 팸플릿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전**, 조**)
5월 20일 ~ 5월 25일	<div><div></div><div>● 독도사랑탐구대회 제출 작품 (팸플릿)</div></div> <p>교내에서 진행되는 독도 사랑 탐구 대회 참가 하게 되었다. 내용을 쉽고, 재미있고, ‘우리 것을 지키자’라는 내용의 호소력 있게 전하기 위해 독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부단히도 노력한 결과, 남녀노소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만화를 완성했다. 콘티를 짜고, 내용을 구성하고, 독도에 관해 공부했지만, 의문점이 드는 것은 동아리원 친구들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여러 번 수정과 검토를 통해 제작된 만화는 [독도 다이어리]였다. 일상적 독도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일주일에 네 번 독도 다이어리를 쓰는 여학생이 등장해 독도 다이어리 와, 독도를 잃는다는 것, 일본과 독도의 현실, 독도 다이어리의 예시가 대략적 줄거리이다. 독도 다이어리란, 독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글짓기, 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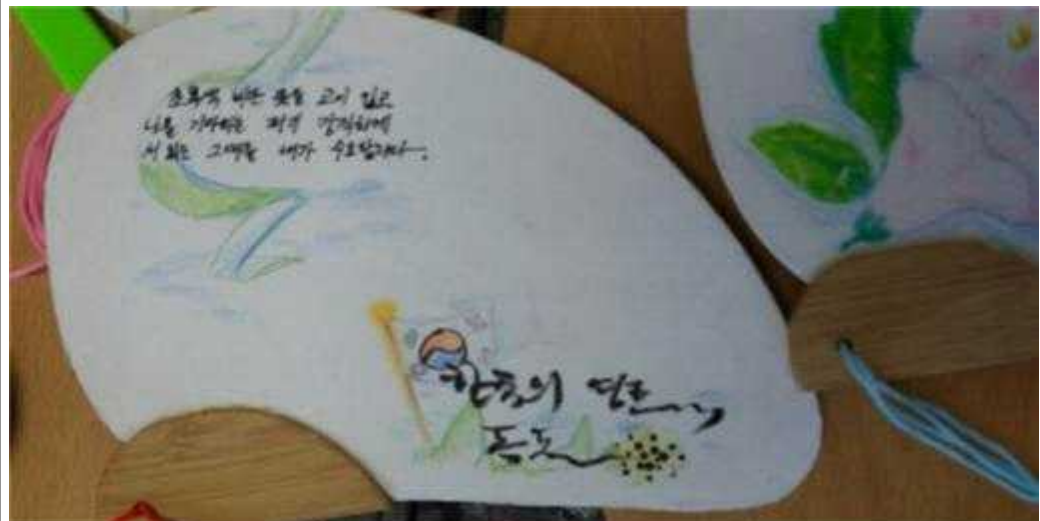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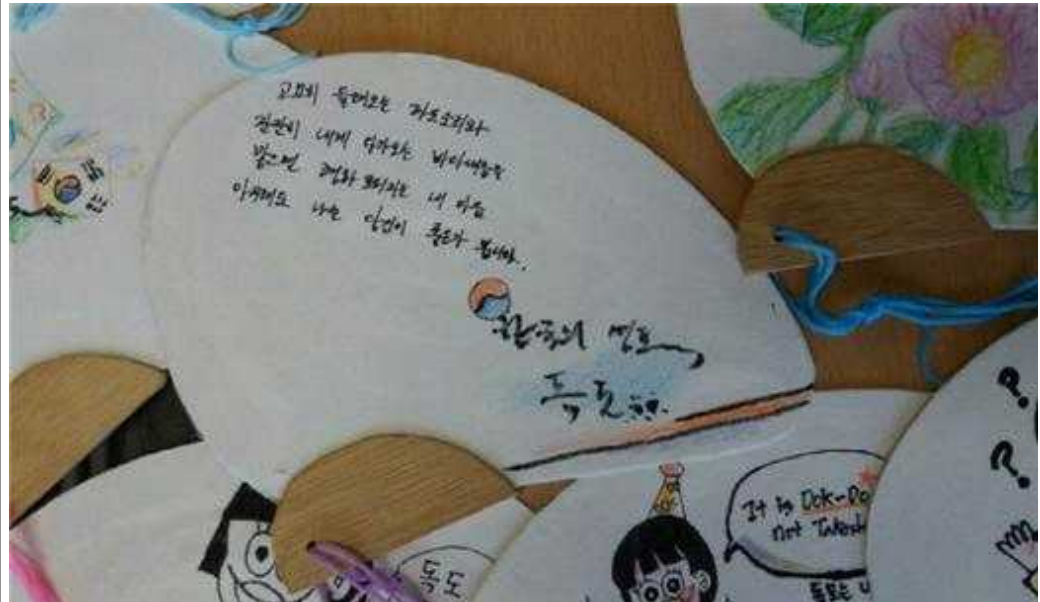
	<p>근 독도 근황, 일본의 주장 등을 날마다 주제를 정해 쓰는 일기이다. 이 만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날마다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나의 책장 한켠에,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은 나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빼곡한 독도 다이어리가 나의 열정을 증명해 주듯 살아 숨쉬고 있다. 내가 관심을 주지 않고, 독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숨이 서서히 끊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교내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독도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노력 하게 되어서 오히려 뿌듯하다.</p>		
<p>6월 1일 ~ 6월 30일</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weight: bold;">독도 배움 활동 (Study)</div> <p>독도 관련 영상 감상 및 토론</p>	<p>간재울중학교 교내</p>	<p>🔵 6월 주 1회 독도 관련 동영상을 감상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독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은 소감문을 작성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p>
	<p>①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 독도 (6월 1주)</p>	<p>🔵 소감 :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여러 영상을 봤지만 그중에서 특히 인상깊었던 영상은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독도] 였다. 독도를 영토로 보지 않고 문화유산으로 표현한 것이 독특했기 때문이었다. 영상을 보면서 '독도는 우리 선조의 역사가 서려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를 새길 문화유산이다' 라는 메시지가 느껴졌다. 6.25전쟁 이후 국력을 챙기느라 너무나도 소중한 독도를 일본이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이 화날 정도 였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일본은 여러차례 독도를 죽도, 즉 다케시마로 칭하며 전 세계에 홍보를 하니 혹 세계인들이 진실을 모르게 될까 염려되지만, 우리같이 독도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두 힘써 노력한다면 아마 세계인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할 노력은 독도의 환경 지키기, 우리 영토인 독도에 사랑을 가지기, 독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도록 힘쓰기이다. 캠페인 활동을 할 때, 백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독도가 왜 한국 영토인지 정확히 아는지 물었을 때 당당히 말한 학생은 겨우 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실망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이다. 독도는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영상을 보니 전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연설이 떠올랐다. 그 연설은 내가 좋아하는 연설 중 하나였는데, 독도는 우리의 되찾은 주권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했었다. 일본이 어서 미화한 그의 나쁜 행적이 만연하는 역사를 올바르게 고치고, 우리의 영토를 넘보지 말고, 사과를 진심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p>	

	<p>② 독도에 본적을 옮긴 사람들 / 홍순칠 대장 (6월 2주)</p>	<p>🔵 소감 : 독도에 본적을 옮긴 사람은 2208명이라고 한다. 나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 호적의 주소가 독도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수치치고는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기껏해야 몇 백명 정도이지 않을까 추측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가장 먼저 본적을 옮긴 사람은 '故최종덕'씨인데 그는 독도에 살기 전, 독도로 자주 고기잡이를 해오던 평범한 어부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독도에 직접 이주해 살며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영토권이라는 한 나라의 권리를 주장해보였고,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몸소 보여주었으며, 그동안 무인도였던 외딴섬을 따스한 손길로 보듬어 주었다. 나는 그의 역사의식과 애국심이 매우 높은 데다가 그에 견비하는 실천력과 결단력 또한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고 종합적으로 그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매우 존경할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높은 역사의식, 결단력과 실천력으로 선봉이 되어 독도로 이주했기에 2208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 있었다. 그가 가진 한국인으로서의 청렴한 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마땅한 큰 가치를 지닌다.</p> <p>'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담화가 있는 자리에서 양국간의 충돌이 잦다.'라는 것이 양국간의 충돌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나에게 1954년에 양국이 무장상태로 독도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었다는 사실은 새롭게 느껴졌다. 근래에 홍순칠 대장, 독도의용수비대 같이 목숨을 걸면서 독도를 지키고자한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이 동영상이 처음이었고 그들의 독도를 지키면서 가졌던 그 숭고한 정신이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또한, 학교 수업 시간에서는 많은 진도량으로 이 내용을 스치듯 지나간 것이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 감사하고 그들의 활동들이 감동적이었다.</p>
	<p>③ 그들의 논리 (6월 3주)</p>	<p>🔵 소감 : 한국명 조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일본이 1300년 사용할 수 있는 코발트, 320년 사용할 수 있는 망간, 100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현재 '자원고갈'이라는 문제가 부각되며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여러 나라들이 후의 피해보다 얻는 가치를 중요시하여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조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중국과 섬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명나라 시대인 1403년 '순풍상송'이라는 문헌에 조어도를 기록, 청일전쟁의 패배로 조어를 빼앗기게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조어도를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 자국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일본은 2011년 3월 30일 중학교 교과서에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1895년 정식으로 일본에 편입했다는 내용을</p>

		<p>정식으로 기재하였다. 일본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교과서에 기록함으로써 중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조어도를 분쟁지역화 시키지 않기 위해 중국과의 대립을 피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 일본의 논리는 이러하다. 일본은 상반되게도 독도를 두고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어도와는 다르게 행동한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키려 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 독도는 일본의 소유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p> <p>일본은 자국의 유리함을 위해 조어도와 독도에 대해 다르게 대처,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기재하는 등 상반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뻔뻔한 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현재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미미하게 반응하고 있다.</p> <p>독도를 대한민국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p>	
		<p>④ 현실, 비현실, 바른길, 어긋난 길 - 독도 영유권 (6월 4주)</p> <p>● 소감 : 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일국교정상회담이 열린다. 이곳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입국가적 피해의 배상으로, 8억 달러를 받는다. 그러나 이 대가로, 군 위안부, 강제징용, 원자 폭탄 피해 등의 개인적인 피해 보상의 청권을 강제로 포기하게 된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었지만, 정부와 언론은 '국민 간의 단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겼다. 게다가 이승만 정권 때 체결되었던 독도 평화선 또한 사라지게 된다.</p> <p>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한때 이런 말을 하셨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나중에 8억 달러에 대한 언론의 조작이 밝혀지자 국가적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자금이라며 문제로 삼지 않았다. 사라진 평화선은 2006년 일본이 본격적으로 독도를 노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p> <p>김구 선생님은 1949년 6월 26일 암살을 당하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분의 죽음을 발판 삼지 못하고 일본의 근거 없는 농락에 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실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8억 달러로 피해자들의 원망을 사는 행위와 같은 일을 막고, 아직 살릴 수 있는 독도에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면 한다.</p>	
7월 14일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독도 체험 활동 (Experience) </div> <p>독도 체험관 방문</p>	독도체험관 (서울)	<p>● Global Union 동아리와의 연계 활동</p> <p>● 교내의 Global Union 동아리(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 취지 중 하나인 '바른 역사 알기'와 독도 동아리의 독도 체험</p>



			<p>관 방문 목적이 맞아 떨어져 함께 동행하여 Global Union 동아리(유네스코 동아리)와 외국인의 독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p> <p>● 세부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시 ~ 10시 : 검암역 ~ 독도 체험관 ▶ 10시 ~ 12시 : 독도 체험관 → 전시해설 + 4D영상 관람 → 학습지 작성 → 독도 경비대에 편지 쓰기 ▶ 1시 ~ 3시 : 지하철역에서 외국인과의 인터뷰 ▶ 3시 ~ 4시 : 귀가
<div>    </div> <div> 독도 체험관 전시 해설 독도 체험관 관람 모습 </div> <div>    </div> <div> 독도 경비대에 편지 쓰기 독도 학습지 작성 외국인과의 인터뷰 </div> <p>● 활동 소감 : 독도 동아리를 시작할 때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것.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도를 굉장히 먼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먼저 가서 그곳의 실제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소망이었다. 하지만 진짜 독도를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대신 독도를 멀리서라도 체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독도 체험관에 가게 되었다. 독도 체험관은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p> <p>미리 예약해둔 전시해설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여 먼저 독도 수비대 경찰분들께 편지를 썼다. 이 편지들은 모두 독도에 진짜로 전달된다고 한다. 독도를 지켜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작성하였다. 그 다음에는 자연관, 역사관으로 이루어진 전시장들을 돌아다니며 독도 문제지를 풀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예습을 하는 느낌이라 좋았는데, 생각보다 찾기 어려워 애를 먹었다. 다 풀자 카운터에서 강치가 그려진 파일을 나누어 주셨다. 어느덧 시간이 되어 해설사선생님과 함께 역사관으로 이동하여 독도에 대해 수업을 시작하였다.</p> <p>선생님은 독도는 신라 시대부터 우리 땅이었으며, 원래는 독자적으로 우산</p>			

<p>국이라는 작은 섬나라였지만 이사부 장군이 그곳을 신라로 편입시켜 우리의 땅이 되었다고 한다. 그 뒤로도 계속 대한민국 땅이었으나, 최근 근거 없는 고집으로 일본이 땅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라 하셨다. 마지막으로 일본인이 독도가 왜 너희 땅이냐고 물으면 당당하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셔서 갑자기 뭉클해졌다. 역사관 탐방 후에는 자연관으로 넘어가 독도 모형을 바라보면 그곳의 지형과 동식물에 대해 배웠다. 독도도 사람이 살기 좋은 곳과 울퉁불퉁하여 건물 하나조차 세우기 힘든 곳이 있다고 했다. 동도는 그나마 평평한 땅이 있어 우리의 독도 경찰분들이 주둔하고 계시지만, 서도는 너무 가팔라 독도 이장님 김성도 씨만 계시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는 쉬는 시간 겸 독도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VR 기기로 독도를 체험해 보았다. 천혜의 자연이 펼쳐지는 모습에 우리 동아리 부원들 모두 놀람을 금치 못했다.</p> <p>독도를 굳이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체험할 곳이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기뻐다. 비록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닌 독도지만, 마음을 전하고, 그곳을 지키는 분들에게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독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 본적 있으나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을 많이 알려 마음이나마 보내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p>			
7월 7일 ~ 7월 20일	<div>독도 체험 활동 (Experience)</div> <p>독도 굿즈 제작 및 판매 활동</p>	간재울중학교 교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굿즈 제작 : 7월 7일 ~ 7월 17일● 굿즈 판매 : 7월 18일 ~ 7월 20일● 판매 대상 : 학생들, 선생님들● 세부활동 : 앞으로 독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홍보했다. 청소년들은 소비지향적, 감각, 감성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우리는 독도 관련 캐릭터, 관련 상품을 멋있게 디자인하고 창조해내어 청소년들이 상품을 사고 그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독도의 가치에 대해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렇게 해서 모인 돈 '3만원'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라는 사이트를 통해 기부하였다.
	<div><div></div><div></div><div></div></div>		
	<div>독도 굿즈 '부채' 제작</div>		<div>독도 '목걸이' 제작</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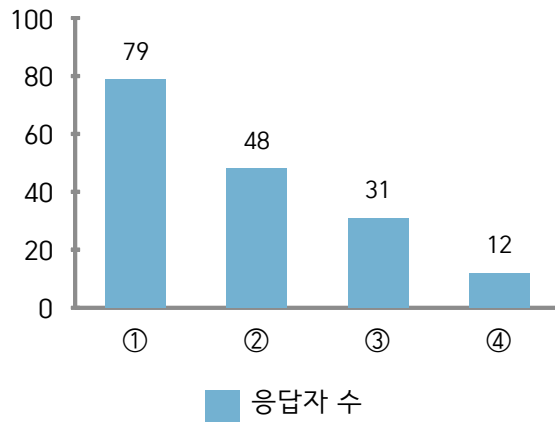


● 활동 소감 : 맨 처음 한빛아라의 활동 계획을 세우던 날, 우리 한빛아라는 독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했다. 우리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지만 독도 굿즈는 특별한 존재감을 뽐냈다. 우리가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굿즈는 그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가 이 상품을 사면서 그에 부여하는 의미가 남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우리는 독도 굿즈를 제작하기로 결정했고, 우리가 직접 무엇을 만들어 판매할 뿐 아니라 독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실질적으로 한다는 생각에 설렘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독도 굿즈에 대해 논의하려고 모인 날에 우리는 난감하고 막막했다. 독도를 대표하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본다는 것은 많이 낯설고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캠페인에 필요한 피켓을 만들거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작품을 만들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다. 판매용 상품을 만들려다 보니 많은 부담감이 들었다. 또한, 인터넷에서 주문한 부채와 목

<p>걸이를 봤을 때엔 생각하던 것과 달리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곤란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한빛아라 조원들은 부채와 목걸이를 사람들이 갖고 싶다고 느끼는 상품으로 탄생시키기 위해 매끈한 표면 위에 한지를 붙이고 직접 창조한 시와 캐릭터, 그림을 그려 넣었다. 만들면서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질이 높게 만들어야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독도를 위해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우리가 창조한 시와 그림, 캐릭터들을 통해 독도에 대해 더 알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 좋았고 그런 일념으로 부채와 목걸이 제작 활동에 임했다.</p> <p>마침내 16개의 부채와 7개의 목걸이를 모두 완성한 후, 처음에 급식실 앞에서 판매하려고 했을 때에는 전시용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가 핸드메이드 독도 부채와 목걸이를 판매한다고 외치니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 구경을 하고 직접 사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 때마다 우리는 큰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칭찬은 우리를 더욱 기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남은 부채들과 목걸이들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께 판매했고, 최종적으로 3만원이라는 수익금을 얻어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에 기부함으로써 활동을 마무리했다.</p>			
7월 9일 ~ 7월 20일	<div><div>독도 알림 활동 (Purblicity)</div><div>독도 자유게시판과 독도 활동지</div></div>	간재울중학교 교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 자유 게시판 : 학생들이 생각하는 독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고 학생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독도 퀴즈 활동지 : 독도 자유 게시판 앞에 두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가져가 볼 수 있게 하였다. 독도에 대한 기본 상식문제를 출제하였고 몇 가지 문제는 노래를 이용하거나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루하지 않도록 출제했다.
	<div><div></div><div>독도 자유 게시판 운영</div></div>		<div><div></div><div>독도 퀴즈 활동</div></div>

● '독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조사 통계 결과 (참가 인원 총 156명)



순 위	응답 내용
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지하고 있음
②	독도에 관한 정보를 궁금해하며 관심을 가짐.
③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에 대한 국제적 입장 서술, 일본의 태도를 비난
④	일본의 태도를 심하게 비난

간재용 독도 동아리, <한빛아라>	한빛 : 아라 :
독도 퀴즈	

-7월 200인(권) 8시 40분까지 2층 보건실 안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7명에게 7월 200인 주권-서는 시간동안 소중한 상품을 드립니다!

Q1. "한빛아라"의 뜻은? (힌트 : 2층 보건실 밖 한빛아라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Q2. 독도를 소개해주세요—
※독 :
※아 :

Q3. 독도에 사는 동식물은? (동물, 식물 각각 2가지씩)
※동물 :
※식물 :

Q4. 독도가 우리땅인 근거는? (1가지)

Q5. O/X Quiz
(1) 독도는 울릉도에 속해있다. ()
(2) 독도의 길이는 명중한다. ()
(3) 독도는 행정섬이다. ()



Q6. 빈 칸에 알맞은 칸어를 써넣어 주세요—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 □□ 외로운 섬 하나 ○□□□ □□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백삼십이 북위 삼십칠 평균기온 십이도 강수량은 천삼백 (○□□□ □□ □□ 노래 <독도는 우리 땅> 中...	() : () : () :
--	---------------------------------

Q7. 독도의 날은?
※ _ 월 _ 일

Q8. 독도의 면적은? (1가지)

한빛 아라

	 <p>독도 퀴즈 학생 제출 자료</p>	 <p>독도 동아리 '한빛아라' 소개 만화</p>
--	---	---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보고서	'ESpecial, 독도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 막연하게 알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또래 친구들에게 독도에 대한 지식,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알릴 수 있었다.
- 독도 굿즈 판매, 독도 자유게시판 운영, 독도 사랑 캠페인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 독도 체험관 방문을 통해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독도 문제에 관해 청소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 향후 계획

- 지속적으로 독도와 관련된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 독도 관련 도서를 읽고 동아리 내 독서 토론 활동을 활성화한다.
- 활동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SNS를 통한 독도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 월별 독도 신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촉구한다.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김태름	독도를 굳이 가지 못하더라도 독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곳을 지키는 분들에게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말로만 하고 살았던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독도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혜림	우리에게 '한빛아라'라는 이름은 단지 동아리의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며 고민하던 수시간, 캠페인을 하기 전 부끄러워하고 긴장하는 내 친구들의 모습, 선생님과 함께 웃으며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교내의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같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이다. '한빛아라'라는 이름하나에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힘들어하던 그 시간들도 이제와 보니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추억이다. 독도에 대해 알리자고 비장하게 이야기하던 아이들이 모여 동아리 이름하나를 어떻게 지을지 곤혹해하던 모습. 우리는 우리가 수 시간 동안 고민하던 동아리 이름 '한빛아라'에서 활동하며 우리는 성장했고 우리의 위태로운 발걸음들을 옮겨나갔고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한빛아라'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조한선	독도 관련 활동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지만 그러했기에 협동하는 법을 배웠고, 새 학기가 지났음에도 겪은 어색함을 떨쳐내며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의견을 조율하고 역할을 적절하게 나누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을 계속 다져가며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이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하여 매우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활동들은 독도를 더욱 빛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한빛아라 조원들의 단결력을 다지게 해준 잊지 못할 소중한 한빛아라의 경험이 될 것이다.
추윤희	나와 내 친구들, 우리 한국인이 모두 모여 한 사람씩의 노력을 보태면, 독도에게 '독도의 정체성을 잃었던 어두운 시간' 대신 '맑고 하얀 독도의 새 시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이며, 이 빛나는 문화유산을 물려받을 존재도 우리의 후손일 것이다.

5. 건의사항

- 굿즈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실제 독도를 가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 독도 관련 교육 동영상도 더 다양하게 보급되었으면 한다.